

예수의 치유와 죄의 용서 (마가복음 2:1-12)

(개역개정)

¹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¹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³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⁵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⁶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⁷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⁸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⁹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¹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¹¹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¹²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새번역)

¹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²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³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⁴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⁵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⁶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⁷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⁸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⁹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¹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¹¹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¹²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1절

“수 일 후에 ... 다시 가버나움”

↓ ↓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예수는 가버나움을 떠나서(38절 참고)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다가(39절 참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
누구의 집? 1) 예수의 집? (가버나움은 예수의 제2의 고향)
2) 시몬과 안드레의 집?(29절 참고)

예수가 어느 집에 있건, 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바 있으며(1:21-34),
예수를 찾고 있었다(1:37).
예수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로고스, λόγος: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 cf. 1:14-15)

3절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
오늘날의 중풍병(뇌질환, 뇌졸중)과 같은 병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에게로 데리고 왔다.

4절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에게로 접근할 수 없었다.

(들것을 옮기는 것은 한 사람이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들것을 아래로 내렸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옥상이 평평하였으며,

옥상은 또 다른 생활 공간이었고 하였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다.

또한 옥상은 일반적으로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뜯어내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의지를 움직인 것은 환자가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 사람아”: 개역에서는 “작은 자”(τέκνον)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용어

그러나 반드시 어린 아이일 필요는 없다.

청년에 대한 친숙한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수동태로 표현: 죄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음

(하나님이 주체인지, 예수가 주체인지...)

6-7절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율법학자 몇”(6절) 사람이

“마음속으로 ... 생각하기를”(6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네 죄가 용서받았다”(6절)

↑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이해
왜?

당시의 일반적 통념: 죄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다.

↓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
즉,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예수는 제사장도 아니고,
이 환자는 죄의 고백을 하지도,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다.

↓
이것은 제사장들과 성전체제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레 24:10-23)
예수는 나중에 신성모독으로 고발됨(막 14:60-64)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

예수는 그들의 속마음을 안다. → 예수의 신적 권위가 반영되어 있음

9절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1) “네 죄가 용서받았다.”

(2)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걸어가거라.”

즉각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1)번이 더 쉽다.

그러나 (1)번이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2)번이 더 쉽다.

그런데 (1)번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선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율법학자들은 제사장도 아닌 예수가 (1)번을 선언한 것을 문제 삼는다.

10-11절

이에 예수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10절)뿐만 아니라, → (1)번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11절) 하고 말한다. → (2)번

↓

예수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1)번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 (2)번

(1)번과 (2)번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운지 어려운지,

율법학자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번이 더 쉽다고 대답한다면, 신성모독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2)번이 더 쉽다고 대답한다면, 증거를 보여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

여기서 예수는 (1)번과 (2)번을 다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드러난다.

12절

중풍병 환자의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

↓

(1) 예수의 권한과 능력에 놀람

(2) 그러한 능력을 보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 예수를 움직인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의 행동은 무례하였다.

(1) 다른 사람의 집의 지붕을 걸어 내다니,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이다.

(2) 많은 이들의 다급함보다 자신들의 다급함을 내세우니, 염치도 없다.

그런데 왜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를 고쳐주었는가?

그들의 무례함보다 그들의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인가?